



“체계적 회원관리, 활발한 사업추진!...  
이젠 협회에 힘을 실어줄 때이다”



f.i.g.h.t.i.n.g!

지난달 16일 양평군 사슴연구회는 (사)한국양록협회 산하 양평군 지회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양평지회(회장 박재하)를 창립했다. 양평지회는 그동안 사슴연구회로 활동해 오면서 사슴 판로를 개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석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왔다.



어느 사슴인 단체보다 낫다는 평을 들어온 양평군 사슴연구회는 지난달 16일 본회 양평군 지회로 그 성격을 달리했다.

협회에 대한 불만이 긍정으로 바뀐 것인데..., 협회차원의 협조를 통한 정보교류 및 정보전달을 위한 목적이라 하겠다.

앞으로 자조금 및 예표작업 등 지회의 안건을 협회와 공유하고 것으로부터 지회임무를 시작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평지회(구 양평군 사슴연구회)는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회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회 자체의 활발한 사업 활동은 회원에게는 판로개척을, 지역 주민에게는 녹용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었다.

양평 지회는 총 140명의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준회원은 사슴 한두 마리 정도의 소규모 농가로 지회 활동과 참여도를 감안해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전 농가에게 공지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회비 납부 등을 포함한 양록업에 열의를 가지고 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회원은 정회원이다. 현 정회원은 20명으로 구성됐다.

정회원은 지회의 사업에 동참해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도하고, 자체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점이 양평군 지회의 성과와 같다.



김광섭 사무장

“녹용은 비싸다”는 선입견을 음식개발로 양륙업 선봉에 서다

녹용을 이용한 음식 개발은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녹용의 엑기스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한과’, 녹용의 엑기스와 꿀을 혼합해 만든 ‘녹용 꿀’, 천연 녹용과 인진쑤으로 만든 ‘녹용 주’ 등 실생활과 접목한 음식 개발은 그동안 녹용이 비싸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임을 알리고 있다.

또한 다린 녹용을 동결해 차처럼 마실 수 있도록 개발, 업계에 귀감을 사고 있다. 다려낸 녹용은 국산 녹용을 고압 증탕기로 수분증발 없이 다려낸 것으로 한 봉에 국산 녹용 반량(18.5g)이 들어 있다. 과거 녹용이 귀했을 때에는 녹용을 한약으로 밖에 접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사슴 사육 농가가 많아지고 활성화됨에 따라 양질의 국산 녹용이 생산되고 있고, 녹용이 가진 각종 성분을 보다 손쉽게 응용할 수 있게 됐다.

양평지역에 사슴을 알리는 적기는 때마다 개최되는 행사이다. 양평지회는 그동안 △ 양평은행나무 축제 △ 우리농업을 살리자 △ 전국사슴인 대회 △ 양평산수유축제 △ 양평친환경 농축산물 한마당 잔치 등에 참가해 각종 시식회와 녹용제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사슴에 대한 일반적 선입견을 제하고 국내 사슴의 우수성을 피력했다.

이런 양평지회의 노력은 군과 시의 관심을 얻기에 충분했고, 군에서는 양평군 지회에 해마다 1천만 원에서 1천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로써 양평군 지회는 자체 사무실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지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 각 전 회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양평지회의 활발한 운영은 양륙업의 ‘판로개척’이라는 커다란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